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지금까지 알던 공부 싹 버리세요

철야정진법문 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죠? 내가 지금 여러분 보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 아무 자체 지혜가 없어.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향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를 모를 겁니다. 물론 아는 분들이 계시지, 나는 환히 알고 있어. 뚫어지게 알고 있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그러나 여러분의 그 몸뚱어리 이거, 이거는 자체의 지혜가 없는 헛거, 허망물이에요. 내가 허망물을 향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쉽다는 말 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학 다 다녀, 다 지식인이여, 아, 이 말 쪼아야 어찌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부터 검토하세요, 만약 과학적으로 안 맞다면은 내 말 거부해 버리세요. 과학적으로 딱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작용을 하는 하나의 광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땀 좀 흘리세요, 땀 나는 줄 아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립니까?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립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

하십니까? 이거 웃고 치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이 기회에 오늘 밤에, 물론 앞으로 오록일 있지만 말이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찾아 내세요,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들 너무 춤을 많이 출까 싶어서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춤을 추게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춤을 너무 많이 추지 말고 조금만 추도록 이리 하세요, 춤추다가 자부(조는) 사람 밝으면 곤란한 일입니다. 하하하, 그러하니 이렇게 추기 쉬운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미한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다가도 맞다 말이며, 거부할 안 해, 여러분 지금도 내 말 거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딱 하게 고개 돌리면 이거 내다 내 머리카락이 팔이 손이다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물론 팔이요, 그런데 이걸 시켜서 뭘 하는데, 탁탁 작용을 하는데 탁탁을 해버려.

그러하니 오늘 내 이 정도도 얘기를 해 두겠습니다. 좌우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그리고 이거 처음에 벽 오동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심송 이리 죽 있는데 이거 전부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걸 갖다 가려가면서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이 없지 않은 가려가면서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여러분들이 기회에 말이죠 하루에 하나만 아세요, 열 내(개)나 백 나나 할 것 없이 하나 알면 전부 알아버립니다. 우주 공간에 걸 전부 알아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만 아세요 하는 건데, 우주 공간이고 빛이고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허공중에 등등 떠 있다는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다 혀바닥이 맛보는 것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뭇이며 귀로 듣는 것이 뭇이며 혀바닥으로 맛을 보는 것이 뭇이며 의심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뭇 의심을 가져요, 그런데 의심 할 것이 없어요, 하는 놈이 있거든. 하는 놈이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 다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이라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말이 많습디다. 이틀들 많아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 아니라 그 말이며, 여러분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견어잡고 하는 애 겁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체중생이 다 자기일때 '열반'

4-4 귀경례

이 고를 없애는 것을 멸(滅)이라고 하였으며 그 원리를 또한 멸제(滅諦)라고도 하였습니다. 또 열반(涅槃)의 원인은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깨친 행동, 실천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이는 환희(歡喜)와 대자대비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도(道)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 초전법륜(初轉法輪) 시에 중생에게 설법(說法)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회적 현상과 원인(原因) 결과(結果)의 동시에 실천되어 나가는 일을 설명하신 대목이 있어 이를 사제법문(四諦法門)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나 니르바나, 열반을 얻은 그 자리가 극락세계다. 도통한 자리,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라 그 세계에서 우리 중생을 인도해 주시는 아미타불 부처님께 목숨을 돌이켜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반을 앞에서 진리 혹은 법성이라고 하였지만 다시 진여(眞如)라고도 하는데, 용수보살(龍樹菩薩)은 대지도론(大智度論) 백권을 펴낸 가운데 진리의 이름을 열반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말 - 진리 자체를 열반이라고 하는 - 논리와 설명이나 지식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진리를 일심송(一心宗)은 논리적 유희가 아니라, 거룩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비유컨대 노란 빛으로 광택이 화려한 광석을 보고 그것은 금성(金性)이라 하거나, 희고 빛나는 것은 은(銀)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직관(直觀)이다.

모든 진리의 거룩하고 숭고한 그 자체를 열반이라고 하며, 그런 뜻에서 열반을 법성(法性)이라고 한다. 진리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는 법성을 진여(眞如)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참된 자리라는 뜻이다. 백여가지나 되는 모든 과오를 초월하고 무무 만물을 포용하여, 덕으로써 갖추지 않은 바가 없으며,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모든 현상을 다 나타내지 않은 바 없는 원만(圓滿)한 모양을 진여해(眞如海), 진여의 바다라고 한다. 또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극락세계다.

죄악이 깊은 우리 중생, 번뇌, 망상의 문치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불(阿彌陀佛)에게 지성으로 절한다는 것이다.

至心歸命禮 大智文殊菩薩大行普賢菩薩摩訶薩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문수보살(文殊菩薩), 이 문수라는 것은 만승세리라는 범어(梵語)를 중국 말로 번역한 것이며, 이미 이것은 우리말이 되어 있으므로 문수보살로 하자.

그런데 보살로는 다음에는 보현보살(普賢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해동교주 원효보살(海東教主元曉菩薩)하는 여러 보살이 나오므로 개별적인 성격은 나중에 들기로 하고 먼저 보살의 일반 개념을 풀어

《보성론》과 같은 말인데 《법집경(法集經)》에는 우리들의 일체 만행을 통털어 두 마디 말로써 포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실수행(如實修行)이고 또 하나는 불방일이다. 알차게 수행하는 동시에 무엇이건 방심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엇이나 그만 함부로 형명형명 보내버리는 것을 방일이라고 한다. 애써 노력하고 전진하는 것은 불방일(不放逸)이다.

여실수행한다는 것은 알차게 실답게 수행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성취시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수행과 더불어 타인에게 자꾸 덕을 베풀어 주는 시(布施)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으며, 부단히 노력, 전진함으로써 도통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도통한 만족한 행을 계속 자꾸만 전진하는 것이므로 공덕(功德)은 더욱 깊어간다.

그러므로 불방일은 불구보(不取報)라고 하여,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그 만큼 보수를 달라는 과보(果報)를 바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보살이 여실수행과 불방일이라는 이 두 가지 규범(規範)으로써 이룩하는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계(戒)라고 일컫는 것이다. 청정(淸淨)하다든지 또는 인욕(忍辱), 육된 일을 잘 견디고 계를 지켜 우리들이 어떠한 곳, 어떠한 일에도 용하게 참아 나간다면 이것은 무생인(無生忍)을 얻었다고 말하게 된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러한 인(忍)을 얻어야 한다.

그러하여 무생인을 얻으므로 모든 선(善)의 뿌리가 묻어지고, 이에 권태감(倦怠感)이나 염증이 나지 않으므로 자꾸만 참아나간다는 것을 무유피롭(無有疲厭) 싫증이 없다고 이른다. 일체의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뭐 잘 했다는니 뭣을 어떻게 또는 인욕(忍辱), 육된 일을 버리고 끝내 착실한 안정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민족사)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지식도 육신도 싹 내버려요
여기다 마음을 두지 말아요
몸에 촉각에 신경쓰지 마세요
빛깔도 소리도 없는 이 자리를
오늘밤 내로 찾아내 보세요
하나 알면 전부 알아버려요

”

해서 나간다면 땀이 나다가도 거기서 서늘서늘한 바람이 납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제일 첫째, 처음부터 이리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줄 내가 아닌데 지금 까지 하던 것 싹 내버려요, 싹 내버려. 좀 더 나갈 것 같으면 육신 이것도 내버려주세요. 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여기다 마음을 갖다 두지 말라 이겁니다. 아이고 이거 내 손이 어떻게 아이고 먼지가 묻고, 이런 것 소용없는 겁니다.

좌우간 나는 내의 관리물인 이 육신을 끌고 왔는데, 온 김에 말이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 규명해야 되겠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 규명해야 되겠다. 혀바닥이 맛을 보는 것 아니니까 이거 규명해야 되겠다 하고 이고 나가야 될 겁니다. 사실로 이거 중대한 문제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3기)

회원대상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환영

수련기간 2014년 3월 6일(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오후 2 ~ 5시) 2개월. 회비 30만원. 수료증 수여. 인원제한 있음.

수련학습 내용 영성의 중심기동 세우기 수련 브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수련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피링(행복감) 수련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희전생과 카르마(자기동일성)의 영속성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오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견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등

「레이키(氣 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

제 3기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 개강일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 기본과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사물다루는 법
□ 중급과정 : 시다림, 49재의식, 천도재의식, 점안의식
□ 고급과정 : 오공양무,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교육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음
□ 강 주 : 상일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교육부장 상일 합장

◆ 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76~3 (고왕사)
◆ 전화 : (총무원) 052) 262-6857
010-9707-8850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물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력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법.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장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